

#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. 11. 14. 선고 2012고정 168 판결 상해,업무방해,모욕

## 대 구 지 방 법 원 경 주 지 원

### 판

### 결

사건	2012고정168 상해, 업무방해, 모욕
피고인	A
검사	고은영(기소), 천현주(공판)
변호인	변호사 B(국선)
판결선고	2012. 11. 14.

##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# 이 유

#### 범죄사실

##### 1. 2011. 5.23. 모욕

피고인은 2011. 5. 23. 18:5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시장 앞 인도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(70세)에게 "썩 팔년아, 보지야, 고기를 보지에 다 주워 넣어라."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##### 2. 2011. 5. 27. 업무방해

피고인은 2011. 5. 27. 09: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"썩팔, 고기쟁이에게 고기 많이 얻어 처먹었다. 보지를 벌려서 고기를 보지에 처넣어라."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생선을 구입하려는 손님을 그냥 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.

##### 3. 2011. 5.27. 모욕

피고인은 2011. 5. 27. 18: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"썩팔년아, 썩팔년의 보지를 다 잡아쳐뿌다."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#### 4. 2011. 7. 1. 모욕

피고인은 2011. 7. 1. 17: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에게 "쌌 팔년아"라고 욕설을 하고 술잔을 뒤집고 안주를 밟는 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#### 5. 2011. 7. 2. 모욕

피고인은 2011. 7. 2. 11: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"쌌 팔년아, 국 쏘고 보지 데였다. 쌌 팔년아, 지랄하지 마라. 내 치료비 물려내라 물려주지 않으면 다 때려 죽여 뺏다."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#### 6. 2011. 7. 12. 상해

피고인은 2011. 7. 12. 20: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통로에서 리어카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.

#### 7. 2011. 7. 18. 모욕

피고인은 2011. 7. 18. 20: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노점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"이 쌌팔년아, 미친년아, 내 돈 물려내라."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#### 증거의 요지

##### 1. 증인 E의 법정 진술

##### 1.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
##### 1. 수사보고

##### 1. 상해진단서

#### 법령의 적용

##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11조(모욕의 점), 제257조 제1항(상해의 점), 제314조 제1항(업무방해의 점) 벌금형 선택

##### 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####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, 제69조 제2항

##### 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#### 판사 진화원